

5  
2016

고맙다! 양양  
THANK YOU! YANGYANG

# 양양소식

Vol. 253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내 자연생태습지

# 양양소식

Vol. 253

CONTENTS

## 희망양양

- 04 테마스토리 믿을 수 있는 양양물에서  
제철 식품을 구입하세요
- 06 야양사람 제44회 어버이날 도지사 효행자  
표창 수상, 이종락 씨
- 08 양양 600년 ⑤ 소동라령

## 의기양양

- 10 양양은 지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순조롭게 진행중
- 12 이달의 군정소식
- 17 의정소식 제214회 임시회 개최
- 18 양양의 이모저모

## 오감양양

- 20 맛 칼럼 오색 산채 2편
- 21 장보러가자니 양양시장 물가모니터링
- 22 오랍드리 양양 어촌체험마을

## 여린양양

- 24 정보꾸러미 알아두면 도움되는 생활정보
- 25 일자리정보 5월 추천 일자리
- 26 알림마당 공공기관 행정정보
- 28 공익광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 COVER STORY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어버이날, 서문1리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꽃을 달아드리는 어린이들



양양소식 · 253호

| 발행일 2016년 5월 25일 | 발행인 양양군수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yangyangesm@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 믿을 수 있는 양양물에서 제철 식품을 구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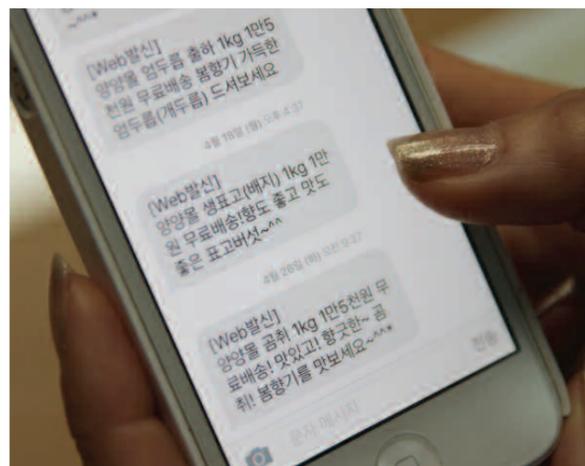
봄나물, 4월 전체 매출액의 70% 차지하며 매출 신장 주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 제철음식이 맛도 좋고 몸에도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다. 특히 봄기운이 가득한 봄나물은 무거운 몸에 활기를 준다. 양양군에서 운영하는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쇼핑몰인 '양양물'의 4월말까지 누적 매출실적이 1억 원을 넘어섰다는 반가운 소식이 봄꽃 향기 따라 들린다. 산나물이 제철을 맞으면서 양양물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 올 한 해의 전체 매출 상승에 청신호가 켜졌다.

### 양양물 을 누적매출액 1억 돌파

매출액이 1억 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이다. 4월 들어 본격적인 판매를 한 봄나물 매출액은 산마늘(명이나물) 550만원, 곰취 350만원, 엄두릅(개두릅) 370만원 등으로 1,270만원에 달하는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양양물 4월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의 봄나물은 물량을 미처 확보하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많아 품절된 상태다.

이밖에도 양양의 대표 특산품인 질골연화두부 1,100만원, 해풍사과 700만원이라는 꾸준한 매출을 보이고 있고, 지난 설 명절에는 송림조산한과가 2,500만원, 피도라지 배즙이 500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림으로써 1억 원이라는 가파른 매출 신장을 이루어냈다.



### 철저한 제품 관리로 고객 만족도 상승

양양물은 지난 2011년에 개설해 본격 가동된 2013년부터 자리매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양양물은 타 지자체의 쇼핑몰보다 가격경쟁력 면에서 우선 앞선다. 위탁이 아닌 직거래로 수수료가 없고, 택배비와 포장재까지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격이 책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고정 고객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전화를 걸거나 구매를 한 고객에게도 제철 계절상품이 출하될 때면 문자알림서비스로 정보를 제공해 줄 정도로 고객 관리에 철저하다.

양양물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 증대에는 산채류, 복숭아, 배, 표고버섯 등 계절상품이 매출의 70%를 차지하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감자, 옥수수 같은 여름 상품은 연매출액의 50~60%에 달할 정도로 호응이 좋다. 이런 봄나물과 같은 산채류의 경우 소비자에게 신선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외면당하기 십상이기에 엄격하게 제품 관리를 한다.

선주문 후수확 시스템으로, 주문 후 다음 날 아침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작물을 채취해 신속하게 배송해 신선도를 높인다.



계절 농산물인 경우에 한해서는 당일 수확한 농산물이 아닌 저온저장고에 보관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절대 고객들에게 판매하지 않는 것이 철칙이다. 이 뿐만 아니라 양양군의 담당 직원이 현장에 매일같이 나가 일일이 사전 검수하고 선별하여 발송 작업까지 확인한다. 그래서 반품이 거의 전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품질 농·특산물을 받아보는 고객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 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늘 생각하는 쇼핑몰 지향

철저한 물품 검수는 양양물이 성장해 나가는 원동력이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 처리도 해야 하는 2명의 농산물유통계 인력이 하루 평균 300여 건의 주문을 감당해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래도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 유지를 위해 위탁을 주지 않으며 입소문을 타고 나날이 늘어나는 고객에 의해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 힘든 줄도 모른다. 앞으로 구매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선호도면에서 소비자 기호가 떨어졌거나, 매출이 저조한 것은 과감히 정리해 고객들이 관심을 갖는 상품을 새로이 입점하는 한편,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고객 신뢰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양양군에서 직접 검수해 신뢰를 주는 양양물은 농산물의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고민도 덜어주면서, 소비자는 착한 가격에 우리 농·특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올 한 해 양양물의 고공행진을 기대해 본다.



홈페이지 : [www.yangyangmall.co.kr](http://www.yangyangmall.co.kr)  
문의전화 : 033-670-2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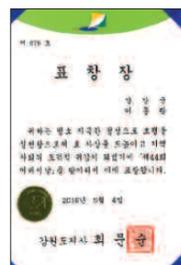


##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히 해 드리는 것이 효(孝)입니다”

### 이종락 씨, 제44회 어버이날 도지사 효행자 표창 수상

「효(孝)」자는 원래 늙은 「노(老)」 밑에 아들 「자(子)」를 받쳐서 만든 글자로 획을 줄여서 그런 모양이 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모양으로 부모를 섬긴다는 뜻이다.

전통적으로 효는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도덕이며 윤리이며 미풍양속이다. 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효 의식이 많이 약화된 것이 현실이다. 오늘 만난 이종락 씨의 효행을 통해 다시금 효 의식을 일깨우면서 가슴 한 편이 따뜻해진다.



### 60여 년 세월 동안 노모와 함께 동고동락

양양군 현남면 안남애길에 살고 있는 이종락(59) 씨는 20년째 어업에 종사하며 틈틈이 농사도 함께 지으며 살고 있다. 그의 어머니인 유귀현 어르신은 올해 93세로, 슬하에 7남매를 두었다. 이종락 씨는 그중 다섯 번째이자 아들로는 셋째다. 유귀현 어르신은 허리 척추 디스크가 심해 86세 때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한쪽 다리가 마비가 오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반신 마비가 되어 현재 거동이 불편하다. 그래도 정서적인 측면을 위해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것을 권유해 4개월

전부터는 낮에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다녀올 정도로 건강하신 편이다. 이종락 씨는 아내 문영순(57) 씨와 홀로 되신 노모를 정성껏 봉양하여 주위에는 소문난 효자로 칭송을 받고 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마을 이장을 역임하며 마을 노인들도 부모처럼 공경하고 보살피는 모습이 이웃에 귀감이 돼 올해 어버이날 도지사 효행자 표창을 수상했다.

## 엄마를 부르던 소년의 가슴엔 자라서도 사모곡이 흐른다.

이종락 씨의 집 택호는 만주집이라고 한다. 일제시대 때 만주까지 갔다가 해방 될 무렵 양양에 정착해서 불린 이름이다. 사람을 믿기 좋아했던 아버지는 돈을 다 떼이고 가족들은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만주집 굴뚝에 연기가 나면 이 동네엔 굶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정도였다고. 그의 어머니는 장사할 밀천도 없었기에 남의 집 일을 해 주고 노임 대신 받은 물고기를 함지에 이고서 산을 넘어 다니며 생선 구하기 어려운 곳에 팔러 다녔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쌀을 사서 자식들을 먹여 살렸다. “여자의 몸으로 어두워진 산길을 넘어 집으로 오실 때면 많이 무서우셨는지 저희더러 고개에서 소리만 질러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오실 시간이면 어둠 속을 걸어오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엄마, 엄마하고 목이 터져라 불러드렸습시다.”

셋째지만 이종락 씨가 어머니를 모시게 된 까닭은 어머니의 힘든 시절만 떠올려도 금세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른 형제들보다 남달랐기 때문이다. 사람 사는 일상이 다 보니 의견 충돌이 있기도 하지만 그 때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그냥 어머니의 의견을 따른다. 그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편안하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고 모셔왔기에 무슨 거창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 나의 도리

옆에서 차를 내어주는 아내를 보면서 이종락 씨는 자신이 효자상을 받을 게 아니라 집사람이 효부상을 받았어야 한다며 괜히 찾잔을 만지작거린다. 장남도 아닌 셋째에게 시집 온 그날부터 함께 어머니를 성심껏 모시고, 명절이나 제사 때면 찾아오는 모든 형제들의 손님치레를 지금껏 묵묵히 하고 있으니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앞으로 이종락 씨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모시는데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 어머니가 지금처럼 잘 드시며 건강하게 사시다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길 바랄 뿐이라며 잔잔한 미소를 짓는 그의 얼굴이 참으로 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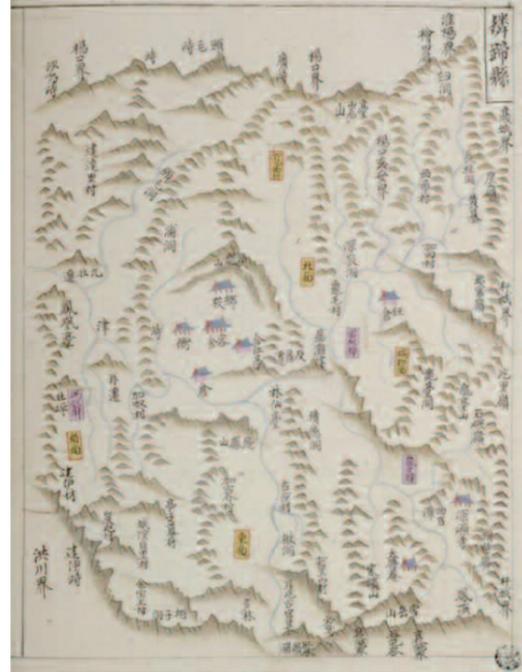
소크라테스는 “내 자식들이 해주기 바라는 것과 똑같이 네 부모에게 행하라.”는 말을 남겼다. 1년 365일이 어버이날인 이종락 씨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정성으로 보살피는 참된 효의 의미가 널리 확산될 것을 소망해 본다.



양양 600년 | ⑤ 소동라령

## 지금의 북암령은 옛 소동라령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지역 지명들을 일본이 멋대로 바꿔놓았는데 그 대표적 예가 소동라령이 북암령으로, 박달령이 단목령으로, 오색령이 한계령으로 창지개명 된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008년도에 발간한 『한국 지명 유래집』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한계령”을 검색하면 한계령이 “옛날에는 소동라령으로 불리었다.”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다.



광여도(인제현-1800년)

### 소동라령이란?

옛 소동라령(所冬羅嶺)은 양양군 서면 송어리에서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로 넘어가는 해발 940m의 험준한 고갯길이다. 지금은 북암령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이 고개의 옛 지명이 소동라령이었다. 박달령이 일본식 한자인 단목령(檀木嶺)으로 바뀌었듯이 북암령이라는 지명도 1916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북애미(북암리)로 고친 후, 소동라령의 이름도 일본식 지명인 북암령으로 고친 것으로 보인다.

소동라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조 단종 2년(1454)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 양양도호부 편에 소동라령(所冬羅嶺)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양양도호부 편에는 “소동라령으로 예전에는 서울로 통하는 길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소동라령의 현재 위치

옛 소동라령과 오색령(한계령)은 명백하게 각각 다른 영(嶺)이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에서 하나의 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지도(古地圖)에 오색령과 소동라령은 각각 다른 위치의 영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아래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지도(古地圖)에 표기된 고개 명칭〉

구분	지도명	한계령	오색령	필노령	박달령(연수령)	소동라령	구룡령
1758	팔도지도		오색령		연수과	소동라령	구룡령
1789	여지도		오색령		박달령		구룡령
1800	해동지도		오색령		연수과	소동라령	구룡령
1830	좌해지도		오색령		연수과	소동라령	구룡령
1834	청구요람		오색령	필노령	연수령	소동라령	
1776	좌해분도		오색령			소동라령	
1834	청구도		오색령		연수령	소동라령	구룡령
1857	동여도	한계령	오색령	필노령			구룡령
1750	해동지도(인제현)		오색령	필노령		소동라령	
1776	지승(인제현)		오색령	필여령		소동라령	
1800	광여도(인제현)		오색령	필여령		소동라령	
1930	인제군세일반지도	한계령			단목령		



팔도지도(1758~1767년)

### 소동라령의 자취

옛 소동라령은 양양에서 서울로 가는 국가관리 고대로(古大路)였다.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 의하면 30리를 1식(息)이라 하여 30리마다 큰 표식을, 돌무지에 장승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의 북암령(소동라령) 정상에 있는 커다란 돌무지는 당시에 장승을 세웠던 이정표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인제현 편에 소동라령은 인제현 동쪽 72리에 있다고 했고, 가력원(加歷院)을 신설했는데 인제현 동쪽 72리 양양부 경계라고 했다. 이점으로 보아 소동라령은 성종 24년(1493)에 역로에서 제외되었지만 인제현은 이 영로의 도로관리를 계속하였다고 본다. 당시 역로(驛路)였다는 입증은 역(驛)·원(院)·주막(酒幕)의 잔재들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지리지』에 의하면 길손들이 먹고 자던 주막이 진동리에 삼거리주막·갈터주막, 귀둔리에 버덤말주막·곰배골주막, 하주리에 가래울어주막·당수터주막, 원대리에 안삼재주막 등이 인제로 가는 역로를 따라 준비하게 기록 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주민들의 왕래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인제군지』의 기린면 북리 마을의 유래를 보면 소동라령로를 따라 인제로 연결되는 대부분 역(驛)과 관련된 자연마을 명칭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대표되는 마을은 상역(上驛)·중역(中驛)·하역(下驛)·역동(驛洞)·역골(驛谷) 등이다. 특히 연락촌(連絡村)은 옛날 관가에서 연락을 다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어가기도 하고 말굽을 고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바꿔 타고 다니기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이지역이 조선시대에 소동라령의 역로(驛路)였다는 것을 확고하게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양양 600년을 맞아 일제가 왜곡한 우리지명들을 반드시 고쳐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북암령(소동라령) 인제방면 옛길 모습



북암령(소동라령) 정상 옛길 이정표를 세웠던 돌무지



북암령(소동라령) 정상의 이정표

〈글·사진 : 양양문화원〉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전 절차 이행 등 순조롭게 진행 중

오색케이블카 4번 지주 예정지에서 바라본 본 독주폭포

##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 및 부처별 개별 인·허가 준비 분주 올해 예산 102억원 기 확보, 사전절차 이행 후 10월경 착공 예정

지난해 8월 28일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승인을 받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기계설비 외자 구매를 추진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군은 지난해 사업선정이후 즉시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난해 12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초안을 제출한 이후 주민설명회와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했다.이 때 제기된 의견에 따라 지난 4월 ~ 5월간 두 달 여에 걸쳐 계획노선을 포함한 주변지역까지 산양 및 멸종 위기종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조사 결과와 시설안전대책 등을 반영하여 6월중 원주지방환경청에 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준비도 진행중에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은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인 1965년에 이미 설악산 163km<sup>2</sup> 면적 전체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아 그 자체가 '천연기념물 제171호'임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도 준비하고 있다.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위한 산지 타당성 조사와 계획부지의 정류장, 지주위치에 대한 세부 측량을 마친 상태이다.



상부정류장 예정지에서 바라본 일몰

## 개별 인허가 관련 정부 부처별 협의중 전체 일정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결정이 제일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업을 위해서는 환경, 공원, 산지, 문화재, 투자심사, 예산확보 등 여러 부처의 개별 인허가를 받아야 사업시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당초 이들 후속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4월 착공을 예측했으나 각 절차마다 부처의 입장이 다르고 국립공원에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이다 보니 주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 개별 정부부서에서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요구사항을 충족한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 이와 관련한 협의 등에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나 전체 일정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향후 추진계획

#### 사업허가 등 행정절차 진행 : '16. 9월까지 완료

- ◇오색케이블카 실시설계(설비포함) 용역 : '15. 3 ~ '16. 7월
- ◇환경영향평가 협의(원주지방환경청) : '15. 3 ~ '16. 7월
- ◇투자심사(2단계), 건설기술 심의 등 절차 이행 : '15. 6 ~ '16. 10월
- ◇산지일시사용·문화재 현상변경·공원사업 시행 허가 : '16. 6 ~ '16. 9월
- ◇궤도사업 허가 신청 및 승인 : '16. 9 ~ '16. 10월

#### 삭도설치 공사 진행 : '18. 1월까지 준공

- ◇오색케이블카 설치 공사 : '16. 10 ~ '18. 1월 (시운전 2개월 포함)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상업 운행 : '18. 2월

## 기계설비는 오스트리아 도펠마이어社 선정, 설계 중

현재 우리군은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예산 신청, 부처 방문 협의 등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착공시기, 공사방법,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핵심부분인 기계설비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외자구매 협상을 진행하여 오스트리아의 도펠마이어社가 선정되어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 양양 시내권 소규모 군 계획도로 개설에 집중 투자

생활밀집 지역내 소규모 계획도로 개설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도시 경관 개선



우리군이 장기간 미 개설 돼 주민불편이 컸던 시내권 군 계획도로를 속속 개설해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도시 지역내 장기 미집행 군 계획도로는 대부분 주거 밀집 지역에 있어 토지 보상 및 지장물 철거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개설하지 못해왔다. 이로 인해 차량 소통이 안되고 우회하는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아파트, 주택 등 생활밀집지역내 장기 미집행된 소규모 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30여억원을 투입함으로써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도시경관 형성 및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다. 2015년도에는 14억 5천만원을 투입해 임천교~서문리간 도로개설, 양양여자중·고등학교 및 양양중·고등학교 진입로 및 인도설치, 양양종합운동장 군 계획도로, 동북빌라 3차

인근 계획도로 등 1.5km구간에 대한 계획도로 개설과 정비를 마쳤다. 올해는 총14억원을 투입해 태산2차A 도로(길이 116m, 폭 10m), 열방A~정아2차A간 도로(길이 220m, 폭6m)와 제일교회~서울빌라간 도로(길이 320m, 폭6-8m)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태산2차A 도로는 우수관 설치를 마치고 6월중 포장이 완료될 예정이며 열방A~정아2차A 도로와 제일교회~서울빌라 도로는 사유지 매입 협의 후 6월중 착공할 계획이다. 우리군은 앞으로도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구축과 미래 성장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군 계획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경제도시과 도시개발담당 033)670-2160



## 여름 해변 개장 앞두고 낙산지구 기반시설 대폭 확충

도로개설, 주차장 정비, 화장실·샤워장 신축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우리군이 관광1번지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낙산지구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올 여름 해변 개장을 앞두고 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됐다. 이번에 준공된 사업은 낙산 주청리 광장 주차장 정비, 낙산사 입구 화장실 신축, 물리커피숍~거북모텔간 2차선 확포장, 공원관리사업소~광장주차장간 도로 개설 등이다. 낙산 주청리 광장주차장은 기존 획일화된 주차라인을 제거하고, 수고가 낮은 적단풍 등 조경수를 식재해 경관을 크게 개선했으며, 경관형 가로등 14개를 설치해 야간 시인성 부족 등 취약점을 보완했다. 대형버스를 비롯해 사계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낙산입구 대형주차장에는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50㎡의 한옥형 공중화장실을 신축했다. 공원관리사업소 뒤편 놀이시설 폐업부지(구 낙산랜드) 중 일부 구간을 매입, 길이 65m, 너비 8m인 도로를 개설하고, 피서철 상시 차량정체가 발생해 온 낙산프레아~거북모텔 앞 370m 구간을 폭 8m(기존 6m)로 확포장 했다. 노후된 100㎡ 규모의 낙산 B지구(주청리) 샤워장이 신축중이며 해변 소나무 쉼터공간과 세족시설, 물품보관함, 송림



전정작업, 휴게시설 설치 등 해변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여름 성수기전 마무리해 올 여름 관광객 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 공원관리사업소 공원개발담당 033)670-2966

### 자치행정

#### 양양소방서 준공 및 개서식 개최

소방공무원 80명, 소방장비 20대 배치  
의용소방대원 402명 소속



양양소방서가 5월 24일 개서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그동안 소방서가 없어 재난,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약했던 우리군은 양양소방서 설치를 위해 군유지와 도유지 교환, 군 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를 이행해왔다. 또한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차량 진출입을 위해 19억원을 들여 59번 국도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는 등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했다.

시내권과 인접한 양양읍 월리 328번지 일원에 위치한 양양소방서는 지난 2015년 3월 착공, 부지면적 9,767㎡, 건축면적 2,774㎡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되었다.

청사 신축에는 도비 30억, 군비 30억 등 총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소방 및 구조차량 1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차고와 함께 사무실과 대기실, 기계실, 체력단련실, 심신안정실, 샤워실 등을 마련했다. 남부 의용소방대 사무실도 별도로 배정해 유기적인 민·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신설된 양양소방서에는 2과 8담당, 1구조대, 1안전센터로 운영이 되며, 장비도 기존 10기에서 펌프 4, 물탱크 1, 굴절 1, 구급 2, 기타 11 등 추가 확충을 통해 총 20기를 배치하는 등 소방력이 증강됐다.

16번째인 양양소방서가 준공됨으로써 독립 소방서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 033)670-2749

#### 양양군, 규제개혁 평가 전국 최우수 지자체 선정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선정  
시상금 1억 2천만원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리군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우리군은 농어촌 지역 관광군의 특성을 잘 반영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것이 인정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해 1월 16일 양양에서 개최된 강원도 규제개혁 골장토론회에서 해안경계철책 철거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손양면 동호리 철책 450m를 조기에 철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건축법상 도로 조건을 충족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임의 적용한 조례를 개정해 도로 폭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을 완화했으며, 옥외테라스 영업을 상업지역까지 허용하는 등 관광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개혁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아영장 등록제도가 과잉규제라고 판단, 지속적인 규제개선과 건의를 통해 최근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지역의 18개 아영장이 추가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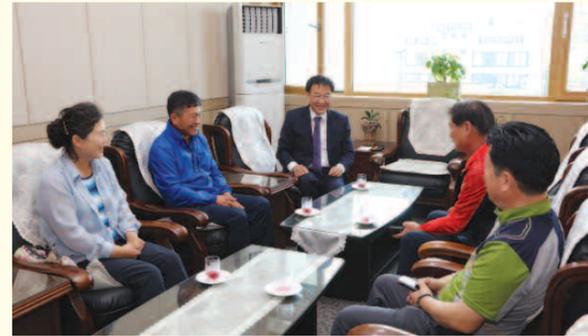
우리군은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정책 방향에 부합해 지역 특성과 밀접히 관계되는 규제개혁, 현장 중심형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위해 더욱 노력을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자치행정과 규제개혁담당 033)670-2951

### 자치행정

#### 군수·부군수 방문 민원 편의위해 민원상담실 설치

민원인 방문 편의 증진 및 소통 강화  
부군수 집무실 축소, 30㎡ 규모로 조성



우리군이 군수 및 부군수 면담을 위해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별도의 민원상담실을 조성했다.

그동안 군수 면담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은 다른 내방객들이나 공무원들로 인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군 행정을 상대로 한 고충·탄원성 민원, 지역 주민과 쌍방 이해가 얽힌 민원 등 해당 민원인이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도 마땅한 대기 및 상담 장소가 없어 얼굴을 그대로 노출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갈수록 증가하는 복잡민원에 대한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민원상담과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1층 민원실과 별도로 민원실을 설치했다.

지난 4월 2,29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군수 집무실을 축소해 30㎡ 규모로 군수실과 부군수실 사이에 설치했으며 칸막이 설치 및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응접탁자 2개, 소파 11개, 전화대 2개 등을 비치했다.

이번에 민원상담실이 조성됨에 따라 군수·부군수와의 면담도 민원상담실을 이용해 진행함으로써 면담을 신속, 수월하게 진행하고 주민과의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세무회계과 계약관리담당 033)670-2144

#### 여름 재난재해 대비 소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추진

산림바이오매스 사업단 활용,  
하천 지장목 제거 작업도 병행



우리군이 소하천의 토사 퇴적으로 여름철 태풍이나 집중 호우시 수위가 상승되어 하천 범람으로 인한 재난 재해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기전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우선 5,900만원의 사업비를 지난 3월 6개 읍면에 재배정해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밀착되어 정비가 시급한 곳을 대상으로 준설작업을 추진했다.

양양읍 감곡천, 서면 논화천 등 15개 하천 14km에 대해 하상 퇴적토를 준설하여 통수단면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정비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군은 5월 17일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하천 준설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각 읍면에 추가로 하천준설예산을 배정해 우선순위에 따라 6월말까지 하천 준설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우리군은 지난 4월부터 하상에 지장목이 우거져 유수의 흐름을 막고 있는 하천에 대한 잡목 제거작업도 추진했다.

별도 예산 투입 없이 산림바이오매스사업단을 활용, 연인원 770여명을 투입해 손양면 동명천, 현북면 상광정천 등 5개 하천 10.8km 구간 22.9km에 대해 제방 풀베기, 지장목 제거작업을 추진했다.

문의 : 안전건설과 하천관리담당 033)670-2752

지역개발

30여년간 목장용지로 임대한 균유지, 전원마을로 조성해 토지이용효율 높인다

강현면 정암리 8만4천여㎡에 대지조성사업 추진



우리군이 초지조성을 목적으로 개인에게 대부하여 30여년간 목장용지로 묶여있던 강현면 정암리 균유지 73,556㎡에 '양양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암리 목장용지는 양양읍, 속초시와 10km 이내로 시내 접근성이 좋으며 동쪽으로는 물치항, 대포항 등 바다가 조망되고 서쪽으로는 대청봉, 화채봉 등 설악산이 조망되는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다.

군은 해당 목장용지 73,556㎡와 인근 사유지 1만여㎡를 포함해 8만 4000여㎡의 부지에 도시민 유치를 위해 660㎡규모의 전원주택 용지 60여개를 조성하는 '양양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지역은 제일 높은 곳이 해발 50m로서 이곳을 중심으로 완만한 구릉을 이루고 있어 원형을 살려 주택을 건축하면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됨에 따라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충분한 녹지공간과 산과 바다 등의 경관을 확보할 수 있어 고품격의 전원마을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인근 주민 및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2017년도에 시행계획 승인 및 착공해 2018년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60여 가구 150여명의 인구유입효과와 더불어 전원주택지 매각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전략사업과 전략기반담당 033)670-2287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 토지 수용 절차 시작

5월 30일까지 보상계획 열람 7월 16일 ~ 8월 31일 토지 보상 협의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절차가 시작돼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우리군은 지난 5월 9일,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토지는 손양면 밀양리 일대 65필지 163,174㎡며 5월 30일까지 군청에서 관계도면 및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열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도시사,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각 1인씩을 추천, 평가 결과를 산술 평균하여 감정가를 결정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보상협의를 하게 된다.

양양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골든비치리조트 보유회사인 (주)새서울레저가 3,176억원을 들여 공항 인근 2,448,198㎡ 부지에 골프장 9홀과 함께 호텔 50실, 콘도미니엄 90실, 테라스형 숙박 60실, 단독형 숙박 200실 등 숙박단지를 만들고, 아울렛몰과 워터파크, 힐링가든 등을 조성하는 체류형 종합스포츠 레저단지 개발사업이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지난 5월 23일 22,000㎡규모의 아울렛 몰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문의 :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033)670-2725



제214회 임시회 개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우리군의회(의장 최홍규)는 지난 5월 9일부터 17일까지 제 214회 임시회를 열고 실과소를 대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영자 부의장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시 "많은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과 양양 600주년 기념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조형물 설치 말고 알차게 행사를 치르는 방향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중 의원은 "교량안전진단 용역시 같은 용역사가 상, 하반기를 모두 수행하게 되면 비교검토가 어려우므로 상, 하반기 각각 다른 용역사를 선정하여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진단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한석 의원은 "성수기 계곡, 하천 간이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여 여름철 지역을 찾는 관광객 및 이용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기용 의원은 종합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한 건물에 따로 지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줄 것"과 "124개리 중 6~7군데는 아직 종합복지회관이 제외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고제철 의원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향후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비를 산정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진중호 의원은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해 "관내 여러 마을에서 도전하여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있어 "신축도 중요하지만 복지회관 하자보수를 위해 하자보수 순위를 선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Tel.033-670-2801

## 사진으로 보는 5월 양양의 이모저모



### 새콤달콤 앵두 맛보세요~ 명지리 앵두축제 개최

현북면 명지리 앵두마을에서는 지난 5월 21일 앵두 사랑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앵두따기, 트랙터마차 타기, 한고만들기, 썩찰떡치기 체험들을 준비해 방문객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 농촌 일손부족에 군 직원들도 힘을 보태요

우리군 19개 부서 250여 명의 직원들은 불철 농번기 일손부족을 겪는 19곳의 농가를 찾아 과수 꽃따기, 열매숙기, 포도순 제거작업 등을 지원했다.



### 청소년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나가요

우리군은 청소년 문화공원 '까리' 조성을 기념해 지난 5월 21일 까리 축제를 열었다. 이날 300여 명의 청소년들은 불까리, 참어까리, 즐길까리 등 다양한 까리 활동을 펼쳤다.



### 양양읍민 하나되는 날, 제10회 읍민의 날 기념행사

양양면에서 양양읍으로 승격한지 37주년이 되는 지난 5월 1일 양양 읍민의 날 행사가 열렸다. 양양문화복지회관을 가득 메운 양양읍민들은 한마음으로 화합되어 흥겨운 축제의 자리를 즐겼다.



###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군은 제94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5일 송이조각공원 일원에서 2016년 어린이 드림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 군이 마련한 다양한 공연과 에어바운스 놀이기구가 더불어 관내 24개 기관, 단체가 참여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바다에 희망을 심는 날, 제4회 바다식목일 행사

제4회 바다식목일 행사가 우리군 수산항에서 개최됐다. 매년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로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다.



### 어르신 건강하세요, 100세 어르신 장수잔치

현산소규모요양원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올해 100세를 맞이하신 두 어르신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다. 직원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여울소리민요단이 공연 봉사에 참여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 나는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양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5월 5일 어린이 드림페스티벌에 참여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영양교육을 실시했다. 센터 직원들은 식품구성자전거 모형을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식품 섭취를 통한 균형잡힌 식사와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 양양에서 러시아 하늘길이 열렸어요

5월 21일 양양공항에서 러시아를 연결하는 항공기가 재취항을 시작했다. 러시아 야쿠티아항공의 95인승 항공기는 앞으로 1년동안 양양~하바롭스크는 매주 화요일, 양양~블라디보스토크는 매주 토요일 주 1회씩 운항한다.

## 사진으로 보는 5월 양양의 이모저모



### 자비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기원합니다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14일 양양 낙산사 보타전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요

우리군은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18개 기관, 단체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19일 양양 읍 하이팰리스아파트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 40여년 공직생활 수필집으로 엮었어요

양양군청 문상훈 안전건설과장(57세)이 40여 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틈틈이 써온 자전적 이야기를 엮어 첫 수필집을 발간했다. '견담(犬談)'이란 제목의 수필집에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 구제역 살처분 현장 등 공직생활의 에피소드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다고.



첫 산채식당과 음식은  
홍포수의 대구집과 약수백반

오색 산채<2>



오색리 산채마을 형성의 근간이 된 '오색약수'와 '오색온천'이 있기는 해도 하늘에 매달리듯, 까마득한 절벽에 겨우 붙어 굽어지고 휘돌아가는 오색령은 사람들의 오금을 저리게 하는 험한 산길이었다. 이런 사정으로 오색리 약수와 온천이 제 아무리 효험이 있다 하더라도 오색리를 들어간다는 것은 여간 큰 결심이 아니고서는 엄두가 나질 않았다. 양양읍까지도 100리 길이라 오가는데 꼬박 하루길의 발품이었다는 오색리 토박이 김재원(71)씨의 말이 당시 오색리의 실상을 기능게 한다.

산채백반의 원조인 '약수백반'

이렇듯 궁벽지 산간마을이었던 오색리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던 1970년부터 전국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유명관광지로 전성기를 맞게 된다. 이즈음 하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상업적 음식도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상업적 음식 본래의 근간은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별식이나 별미로 즐겨 먹었던 음식들로 대구집 주인 고흥재호씨가 이 음식 중에 산채백반의 원조인 '약수백반'을 처음으로 팔기 시작하면서, 당시 30여 가구들도 '약수백반'을 계기로 음식점사가 대호황을 맞게 되었다. 이때 판매된 음식들은 약수를 이용한 약리음식과 온천 후에 먹는 약선음식, 식사 전에 먹는 보양음식으로 구분될 정도로 오색리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음식과 음식문화가 생겨나 존재했었다. 이 중에는 지금은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게 되었지만 양양을 대표할 뻔 했던 맛과 풍미를 자랑하던 토속음식도 있었고, 나라의 체신을 구긴다는 명목으로 사라지게 된 비운의 음식도 있었다. 또한 지금의 오색리를 대표하는 계승음식도 있었다. 약수를 이용한 약리음식으로는 물맛이 오싹하게 질어 코끝까지 짜릿하여 한 모금을 다 삼키기도 어려웠을 만큼, '극치의 물맛'을 자랑하던 약수로 밥을 지은 '약수백반'이 대표적이다. "약수밥만 먹어

도 다른 반찬이 필요없어. 지금은 짝한 맛이 덜해서 누런색이 나지만, 그때는 약수물이 얼마나 강한지 밥을 지어 놓으면 색깔이 시퍼래고... 밥솥을 열면 아주 구수한 누룽지 냄새에 독특한 향도 났다"며 당시의 약수밥 맛을 기억하는 오색리 주민의 말이다.

지금은 사라진 오색리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음식과 음식문화

약수물에 능이버섯과 토종닭을 넣고 삶은 '약수닭백숙'은 살 맛보다 뚜껑 사이로 새어 나오는 냄새가 일미로, 지나가던 사람들도 되돌아 올 정도로 약선음식을 대표했다. 하지만 정작 당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음식은 의아하게도 지금은 사라진 '뽕탕'과 '연탄불 칠성장어 구이'의 보양음식이었다. 뽕탕은 온천에 목욕을 하고 약수로 목을 축인 뒤 반드시 식사 전에 즐겨 먹었던 보양음식으로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였다. 하지만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혐오식품이라는 이유로 더 이상 팔 수 없게 되자, 당시 양양을 대표하던 어종으로 남대천에 서식하던 칠성장어를 구워 먹는 '연탄불 칠성장어 구이'가 보양음식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다. 연탄불에 굽는 칠성장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으며 고기나 생선의 맛이 아니다"라고 할 만큼 고소한 기름 냄새와 쫄득하게 차진 살맛이 여느 장어 맛과는 크게 달랐다고 한다. 지금은 사라진 음식이지만, 한때는 오색리에서 시작되어 양양을 대표하던 음식과 음식문화였다. 이렇듯 약수를 직접적으로 이용한 음식이나, 간접적으로 응용하는 음식이 발달하여 인기를 얻게 된 반면, 나물반찬을 곁들여 먹는 약수백반이라 불리던 지금의 산채백반은 당시에는 막상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음식이었다. 당시의 식생활에서 산나물은 지금처럼 건강한 음식의 개념보다는, 궁핍한 밥상에서 허드렛 반찬 정도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먹는다는 것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산채백반은 보양음식이었던 뽕탕과 칠성장어구이가 사라지게 되면서 반찬 정도로 곁들여 먹다가 자연스럽게 별개의 음식으로 떨어져 나와 지금까지 가장 대중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음식이다.



황영철  
강원도외식저널 대표



일주일에 두 번, 그녀들이 뜬다!  
양양시장 물가모니터링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주일에 두 번, 양양시장에 나타나는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군 경제도시과에 소속된 물가모니터 요원인데요. 물가 안정을 위해 양양전통시장과 마트의 유형별, 품목별 가격을 조사해 우리군 홈페이지와 강원도 물가정보망에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가조사표에 들어있는 시장의 중점관리대상 116개 품목과 시장유형별 가격 25개 품목을 조사해 마트와 전통시장의 가격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비교해줍니다.

그녀들의 물가조사가 특히 빛을 발하는 순간은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장보기 할 때입니다. 주요 선물세트 가격을 마트별로 비교해 양양군홈페이지에 올려놓으므로 명절 장보기에 쓸쓸한 도움이 되지요.

똑같은 채소를 샀는데 마트 가격 다르고 시장 가격 달랐던 경험 있으신가요?

심지어 대형마트가 더 싸게 팔거라고 믿었는데 사고나니 전통시장이 더 싸게 팔았던 경험은요?

우리군 물가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셔서 똑소리나는 장보기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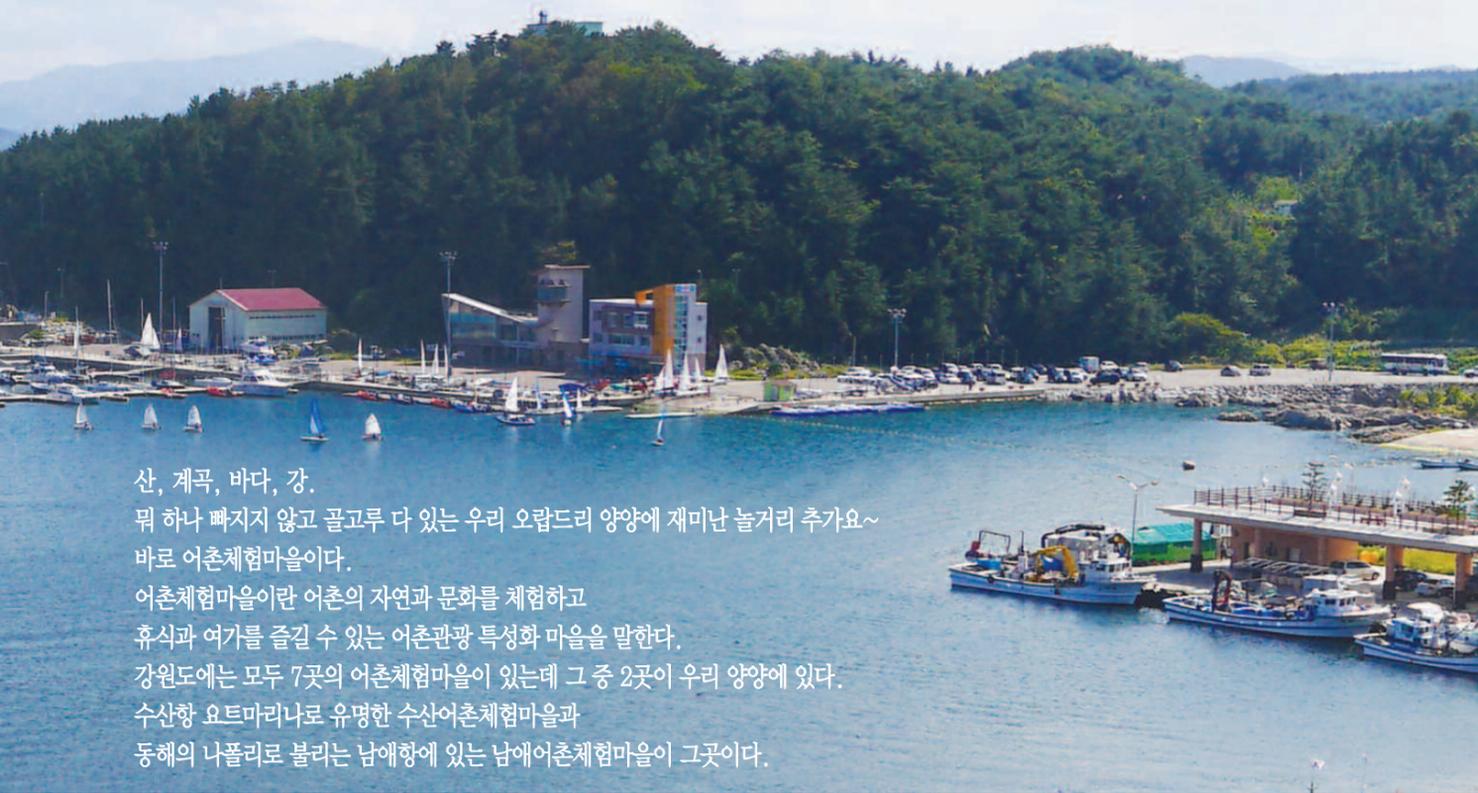
물가모니터 자료 찾는 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www.yangyang.go.kr)
- 함께하는 양양
- 공지사항

| 2018년 10월 15일 기준 |
|------------------|------------------|------------------|------------------|
| 구분               | 단위               | 단위               | 단위               |
| 양양전통시장           | 29,800           | 29,800           | 29,800           |
| 양양대형마트           | 9,900            | 9,900            | 9,900            |
| 양양중형마트           | 9,900            | 9,900            | 9,900            |
| 양양소형마트           | 28,800           | 28,800           | 28,800           |
| 양양대형마트           | 9,900            | 9,900            | 9,900            |



# 올 여름엔 여기다! 아름다운 항구에서 즐기는 짜릿한 물놀이 양양 어촌체험마을



산, 계곡, 바다, 강.  
뭐 하나 빠지지 않고 골고루 다 있는 우리 오랍드리 양양에 재미난 놀거리 추가요~  
바로 어촌체험마을이다.  
어촌체험마을이란 어촌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고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어촌관광 특성화 마을을 말한다.  
강원도에는 모두 7곳의 어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그 중 2곳이 우리 양양에 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로 유명한 수산어촌체험마을과  
동해의 나폴리로 불리는 남해항에 있는 남해어촌체험마을이 그곳이다.

## 수산어촌체험마을 요트 위에서 물고기 만지고 해안 풍경 즐기는 곳

강원도 최대의 요트마리나 시설이 위치한 수산항은 주변에 대형 리조트,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봉수대(전망대) 등이 있는 대표적인 관광어항이다. 요트가 많이 대중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에게는 접하기 힘든 이색체험이다. 인기몰이를 하는 또 다른 체험은 바닷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카누 체험이다. 뭔가 어려울 거 같아서 내키지 않는 분들을 위해 친절히 준비물이 명시되어 있다. '노 젓는 정도의 체력'.  
이밖에도 배낚시, 해초비누 만들기, 문어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이 준비되어 있고, 최근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편보트 체험도 시작했다. 체험을 통해 직접 잡은 신선한 활어들을 바로 맛볼 수 있는 회센터가 있어 체험과 식사를 논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반가운 정보가 더 있다.  
수산어촌체험마을에서는 5월부터 지역주민을 위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양양군을 포함해 강원도민에게 투명카누, 편보트 체험에 한해 매주 일요일 20~25% 할인을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 남해어촌체험마을 가족과 함께 일일 어부가 되어보는 곳

남해어촌체험마을은 강원도의 3대 미항 중 하나인 남해항을 둘러싸고 있다. 빨간색과 하얀색의 마주보는 등대가 명물이 되어 항구의 운치를 더해주고, 멀리서 내려다보면 지중해의 해변을 연상케 하는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마을이다.  
남해어촌체험마을이 운영하는 체험을 보면 어부의 하루가 연상된다. 배낚시, 지인망 체험 및 어획물 시식, 경매, 문어통발 체험 등 어부의 일거리를 체험으로 승화시켰다.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체험을 즐기다보면 협동심, 친목, 우애는 자연스레 따라온다.  
요즘 오징어가 제철인데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을 하면 본인이 잡은 오징어를 바로 회무침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니 그 맛이 일품일 듯 하다.



## 수산어촌체험마을

위 치 : 양양군 손양면 수산1길 20-16  
인터넷 예약 : <http://susan.seantour.com>  
문 의 : 수산어촌체험마을 ☎033-673-3677

체험명	체험요금	이용시간	비 고
투명카누체험	2인승 20,000원 4인승 30,000원	30분	
편보트(전동)	2인승 20,000원	30분	
선상낚시체험	30,000원	2시간	5인이상
요트승선체험	25,000원	1시간	4인이상
스노클링체험	10,000원	1시간	7~8월 운영
문어빵 만들기	8,000원	30분	30인이상 20%할인
해초비누 만들기	7,000원	30분	30인이상 20%할인
피쉬버거 만들기	7,000원	30분	30인이상 20%할인

## 남해어촌체험마을

위 치 : 양양군 현남면 매바위길 127  
인터넷 예약 : <http://namae.seantour.com>  
문 의 : 수산어촌체험마을 ☎033-672-3624

체험명	체험요금	이용시간	비 고
배낚시체험	30,000원	1시간~2시간	3인기준
지인망 체험 및 어획물시식 체험	5,000원	40분	7월~10월 성인 40명 이상 진행
경매체험	간접체험	1시간	
문어통발 체험	4인기준 30만원	1시간	
비닷기 맨손 물고기잡기 체험	15,000원	1시간 30분	6~9월 운영 성인 40명 이상 진행
총합목걸이 공예체험	6,000원	1시간	
요리 체험	15,000원	1시간 30분	오징어 순대만들기 등





**군민 모두 함께 배우는 중국어 한마디②**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우리군을 방문한다면 양양전통시장이 필수 관광코스가 되겠죠?  
중국관광객이 무언가를 묻는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대답해보세요~

1. 多少钱? duōshao qián? 두어샤오치엔? \* 多少 duōshao 얼마나, 몇  
얼마입니까? 钱 qián 돈

2. 能不能再便宜一点儿? néng bu néng zài piányi yidiǎnr?  
넵 부 넵 짜이 피엔이 이디얼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습니까?(좀 싸게 해주세요)

\* 能 néng 할 수 있다 再 zài 다시, 또 便宜 piányi 싸다  
一点儿 yidiǎnr 조금, 약간

3. 谢谢!! xièxie! 씨에씨에!  
감사합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지킴이,  
양양소방서가 업무를 시작합니다**

우리군민의 염원이었던 양양소방서가 준공되어 지난 5월 10일 부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소방업무는 속초소방서 양양119안전센터에서 처리하였으나 양양소방서로 개서하면서 소방업무 처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양소방서는 시내권과 인접한 양양읍 율리 32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부지면적 9,767㎡, 건축면적 2,774㎡,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양양소방서는 2개 과(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와 119구조대, 현남북119안전센터로 운영이 되며, 기존 41명에서 39명 증원된 80명의 소방공무원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구조공작차 1대, 수난구조차 1대 등의 소방차량이 보강되어 총 20대의 차량이 현장출동과 소방업무를 위해 운용됩니다.

119구조대에서 운용하는 구조공작차와 각종 전문 구조장비는 교통사고, 수난사고, 추락사고 등 다양한 구조현장에서 군민의



안전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책임지게 됩니다. 또한 멀리 속초소방서까지 방문해야 했던 건축, 다중이용시설, 위험물 시설 등의 소방관련 민원 업무를 양양소방서에서 처리하게 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양양소방서 부서별 연락처>
- ▲ 소방행정과 : 671-0119
  - ▲ 방호구조과 : 671-2119
  - ▲ 양양119구조대 : 670-0490
  - ▲ 현남북119안전센터 : 672-2119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5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도시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근무지 주소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태양횃집	손양면 수산1길 45	2명	출세빙원/ 주방보조원	10:00~22:00(월2회 휴무)	월180만원
노인요양원 성산사랑마을	현남면 화상천로 608-11	1명	간호사	09:00~18:00 (주5일)	월177만원
밥먹고놀자	현남면 인구길 28-21	1명	출세빙원	10:00~14:00/16:00~20:00	협의
(주)오션벨리	양양읍 일출로 127-30	1명	사무원	09:00~18:00 (주6일)	월130만원
(주)설악산그린푸드	양양읍 포월새마을길 41-50 (제2그린농공단지)	1명	Haccp 품질관리원	08:45~18:15 (주5일)	월200만원
		1명	회계사무원	08:45~18:15 (주5일)	월150만원
사계절횃집	손양면 수산1길 23	1명	주방보조원 (설거지)	10:00~22:00 (금,토,일)	일급 8만원
또와김밥	양양읍 남문5길 13	1명	주방보조원	09:00~17:00 (월2회 휴무, 시간제가능)	협의
동해막국수 (분점)	양양읍 포월새마을길 2	2명	출세빙원	09:00~21:00 (월3회 휴무)	월200만원
신원비엔빌	손양면 굴개길 72 (동호리)	2명	룸메이드	09:00~18:00 (7-8월 한달)	협의
기린뮤직	현북면 조준길 6	1명	음악치료사	16:00~20:00 (월, 화 근무)	일급 6만원
바다수산	강현면 장산3길 56-10	10명	생산직	08:00~17:00 (주6일)	일급 5만원
드림상사	강현면 물치천로 264	1명	공기압축기 조작원	08:30~17:30 (주5일)	월150만원
		8명	재활용품선별원	08:30~17:30 (주5일)	월130만원
(주)세인	양양읍 포월새마을길 23-56 (포월농공단지)	1명	응접원	08:00~18:00 (주6일)	월180만원
		1명	제품디자이너	09:00~18:00 (주5일)	월130만원
수산영어조합법인	손양면 수산1길 20-16	1명	카누체험장 운영요원	10:00~17:00(주말근무/7-8월상시)	일급 5만원
거상에프앤비	양양읍 포월새마을길 41-57	2명	생산직	09:00~18:00 (주5일,토요격주)	월130만원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5월 추천 일자리**

양양군 여성회관 2층  
TEL. 033)670-2890~3 / FAX. 033)670-2456

사업장명	근무지 주소	모집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농업회사법인 (주)설악산그린푸드	양양제2그린농공단지	1명	회계사무원	09:00~18:00	월급130만원
이슬어린이집	양양읍 북문길	1명	보육교사 (누리과정정보조)	14:00~18:00	월급78만원
이슬어린이집	양양읍 북문길	1명	주방조리원	09:00~18:00	월급128만원
연세이튼치과의원	양양읍 양양로	1명	접수 및 예약안내원	09:00~18:30	월급130만원
동해석산	현남면 갓바위길	1명	경리사무원	09:00~18:00	월급136만원
양양할인마트	양양읍 북문길	1명	캐셔 및 경리업무	13:00~23:00	월급150만원
양양할인마트	양양읍 북문길	1명	아채 및 청과담당	08:00~17:00	월급127만원
대발통상	강현면 장산5길	1명	수산물가공	08:00~17:00	일급 5만원
드림상사	강현면 물치천로	1명	의류분류원	08:30~17:30	월급130만원
북청산업영어조합법인	포월농공단지	00	수산물가공	09:00~18:00	월급130만원

▶ 양양군 일자리지원센터와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수시로 구인, 구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6년 5월 16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오색케이블카의 꿈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설악(雪嶽)의 비경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탑승하면  
볼 수 있는 경관을 미리 영상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예정지에서 본  
남설악의 경관